

농어촌 가톨릭 의료기관의 의료사업 현황보고

보은성모의원 원장

정 태 옥 수녀

1976년 가톨릭 병원협회 추계 세미나를 맞이하여 이곳 보은 성모의원이 가까운 속리산에서 협회 장님과 간부님들 여러 회원님들을 뵙게된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자리를 빌어 본병원이 의료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게됨을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본병원의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 한국 농어촌에서 의료사업을 하면서 부딪치는 난관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빈곤과 무지와 질병은 밀고 끌며 나란히 걷는 삼형제와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불행의 요인들 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의촌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고루 의료혜택을 줄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갖은 애를 쓰고있습니다. 각농어촌에서도 스스로 자립하고 잘살기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인의 도시집중에의한 의료인 부재현상은 전국의 벽촌에 심각하게 깔려 있습니다. 병원에서라면 간단한 수술이나 투약으로서도 치유가 가능했을 질병에 의해서도 많은 수의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을 찾기전에 약국이나 무자격 한의사, 심지어는 동네 할머니에게서까지 정체를 진단과 상식밖의 치료를 받으므로서 시기를 놓치고 급기야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수가 드물지 않은것입니다. 이런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책벌도 없이 묻혀 지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모든것들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농촌에서 의료사업을 하고있는 우리가 올

바로 보고 타개해 나가야할 난관들인 것입니다.

본 보은 성모의원은 1976년 2월 clinic으로 개설, 그후 1972년 입원실과 산실, 수술실, 기타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1개면의 산재부락민들의 치료 및 예방사업을 담당해오에 있어서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미미한 사업이라 웃으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의 구비를 들고 오랜 세월에 걸친 작고를 겪은 저로서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면에서 물론 만족할수는 없지만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로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외래와 입원환자, 수술과 분만, 그리고 월 6회의 부락 순회진료로서 실사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 베드수는 12베드인데 전염성이있는 환자를 제외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환자를 같은 병동에 수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면이나 환경면에서 많은 곤란이 있으며 산과와 외과환자를 위한 병실을 따로 몇개라도 만들기위해 노력중이고 그에 서 광도 보일듯하여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 일년간의 무료치료 실적

아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옛날 가톨릭 교회가 행한 의원에 의한 빈민구호를 연상하여 풍성한 물질적 도움이나 무조건 의존적인 무료치료를 기대하는 사고방식이 잔재해 있는것 같습니다. 본병원에서는 순회진료의 대상을 자립정신은 강하나 여러가지 곤란을 안고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내원하는 무료환자의 대상도 꼭 도움이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서 지도자적인 사람이나 기관장들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갖음으로서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많아서 흥청대며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과 함께하는데 의를 찾고있습니다. 75년의 무료치료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증환자수	유료환자수	무료환자수
17,872명	12,512명	5,360명

2. 환자 호송관계

본병원의 환자 호송은 소형 앰블런스 한대와 지난 7월 신도리교회사로 부터 기증받은 마이크로버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역실정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전화가 설치되지 못한 마을이 읍에서 떨어진곳에는 꽤 많이 있고 소형차도 들어갈수 없는길이 이곳저곳에 깔려있습니다. 한예로서 75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부탁에서 이십리 길을 자전거로 나와 전화를 한다는 매우 위급한 산모가죽으로 부터 앰블런스 호송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눈이내려 길이매우 미끄러웠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과가파를 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 부탁을 간다는것은 사실 무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급히 구원을 바라는 애원과 꺼져가는 생명을 생각하자 어쩔수 없었습니다. 운전기사 외의 남자장정 한사람을 붙여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무거운짐은 친주께 드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길을 달려 동베에 거의 당도한 좁다란 논둑길에서 차는 깊숙히 는 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모두는 절망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부락민들이 나오고 황소까지 동원하여 차는 끌어내어졌고 신속한 수술로서 산모의 생명을 구할수는 있었지만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널려있습니다. 더우기 호송거리가 너무멀어 시기를 놓쳤을 때의 슬픈마음은 말로 표현할수도 없습니다.

3. 의료요원 수급상황

의료요원은 현재 의사 3명 간호원 4명 간호보조원 7명 약국직원 3명 검사실 1명 방사선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질병상태와 종류 및 연령별 실태

1일 진료환자 수는 평균 70~80명입니다만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입원을 요하는 중환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원을 망설이고 포기합니다. 소화기, 호흡기질환이 단연 많은데 특히 지난 6개월간의 폐결핵 신환발견은 90명이나 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및 소아가 40%로 가장 많고 50대 30대의 순으로 적어집니다.

5. 의료비지불상태와 병원수지증감경향

어느 병원에서나 마찬가지로 이겠습니다만 본병원에도 상당수의 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가 찾아옵니다. 이때 생명이 걸려있는 치료에서 치료비에 선불만을 주장할수 없으므로 선치료 후지불을 하게됩니다. 지난 8월 독사에 물린지 하루가 지난 환자가 보호자의 등에 업혀 몇 십리길을 호송되어 왔습니다. 뱀에 물린 자리와 침쟁이가 침으로 찔렸다는 자리에선 혈액이 응고되지못해 끊임없이 흐르고 푸르게 변색되며 무섭게 붓고 있었습니다. 흉부에 심한 불편감, 맥박의 미약이 계속되어 24시간 이상을 치료했지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에 치료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그의 보호자가 준비한돈은 지금까지 치료비의 10분의 1도 채 안되는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이런환자의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할수없이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앰블런스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 3~4일후 십몇만원의 치료비 지불청구서를 받았고 그 이튿날은 죽어가든 환자는 해쓱한 얼굴이긴 했지만 걸어서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본병원의 수입은 특별히 심한기복은 없고 계절적으로 약간의 증감이있습니다. 농촌에선 환자라도 농한기를 몰라서 자리에 누워야하는 실정때문일 것입니다. 수입에 맞추어 지출하는 긴축재정, 약간의 약품과 의료기의 의원, 국내독지가의 지원으로 힘겹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6. 병원운영 전망 및 기타

본 병원에서는 치료사업외에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예방과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 지도를 주로 하다가 76년 부터는 "행복한 가정운동"의 일환인 Billing's method에 의한 가족계획을 포함시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갈수록 이것이 이지역에서의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 (16면에 계속)

인데 병원 운영비는 예산의 $\frac{1}{3}$ 은 독일 나협회, $\frac{1}{3}$ 은 의태치료비, $\frac{1}{3}$ 은 왜관 수도원, 그의 특별치료 등 결핵환자의 약값등은 원장님의 친구들이 보내 주는 원조로 충당하고 있어 수입없는 지출만의 운영을 유지해 오고있는 실정이나 환자들의 생활상을 감안, 이 운영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4. 병원 운영 전망 및 기타

계속 늘어나는 환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하여 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사랑의 인술을 펼수 있겠금 환자 치료에 중요한 의료기구를 수입하고 의료시설을 보강하고 있으나 이 모두가 외국원조 단체의 도움없이 할수없는 일로서 외국만이 아닌 국내의 저명 사회사업 단체나 뜻있는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4면에서>

한 사업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교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본당과 부락단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명의 요원이 한주일에 4일을 직접 부락으로 나가 지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별 지도와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에의 육망을 내던지고 이시골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비를맞으며 바람을 쐬며 자동차가 들어갈수 없는 벽촌까지 몇킬로씩 걸어갑니다. 때로는 물이해와 사나운 눈초리에 부딪치고 또 때로는 마당가에서 금방 따주는 배나 감을 먹으며 눈물이 글썽하도록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시골에서의 진료나 예방사업은 모든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든 종교인 혹은 민간인이든 누군가 해야할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를 위한 요양소도 있어야겠고 지역민이 마음놓고 언제라도 치료받을 수있는 의료보험제도도 수립하고 싶습니다. 신념과 노력으로 살아가는동안 이루어질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저희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본회 사무실을 지난 9월 1일 아래와 같이 이전 하엿기 알려드립니다.

이전장소 : 서울중구 명동 2가1

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기획실내(4층)

전화 : 776-4086 776-4051교88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한국행복한가정운동협의회